

<교육선교 사례>

< 성교육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 >

강사: 정규영 선생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클럽의 교육 총괄을 맡고 있는 정규영입니다. 한국 교육자선교회 여름 수련회에 넥스트클럽에서 특강의 한 부분을 맡아주실 것을 요청 받고 어떤 내용으로 함께 나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사역을 시작했고 중심이신 넥스트클럽의 남승제 대표님께서 나눔을 해주셔야 현장의 모습을 좀 더 생생하고 풍성하게 소개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교육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맡겨 주셔서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넥스트클럽의 한 강사로서 기독교사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 및 넥스트클럽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넥스트클럽(NextClub)은 청소년 연합 캠프 진행, 청소년 문화 축제, 케익 나눔 행사, 학교 내 기독동아리 및 기도회 세움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Next Generation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5년 학교기도모임 사역 진행 중 만난 대전 D여고 아이들의 사례를 통해 넥스트클럽이 학교 성교육 현장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동성 친구간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동성애에 관심을 갖게 된 아이들이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퀴어축제에 참가하게 된 사연입니다. 자꾸만 왜곡되어져 가는 청소년들의 성의 문제점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탐색하는 과정에서 학교 성교육의 심각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절제교육보다 청소년의 자유로운 성관계, 합의한 성관계는 정상임을 가르치며 그로 인한 피임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과서에서 자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음란물도 허용하려는 교육이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학교 성교육 현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화되었습니다.

2018년 광주 역따마래성폭력상담소 정미경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성폭력에 방교육 강사교육을 시작하게 되었고 학교 성교육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

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 강사들을 먼저 지역아동센터 교육 현장에 파송하여 교육을 진행한 후 받은 피드백과 강사 회의를 통해 도출한 내용은 동성애의 잘못된 사고를 지적하는 것과 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과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폭력 예방은 없고 사후 처리에 집중 되어진 교육이라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성교육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기독교적 정신을 성교육에 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폭력과 성범죄를 정말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등을 통해 성품(性品)으로서 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넥스트클럽 성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품(性品)성교육은 인간존중 교육이며 생명존중 교육입니다. 정자와 난자의 수정 동영상 및 생명탄생 동영상 시청을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옆 친구를 향해 박수를 쳐주면서 당신은 기적적인 존재입니다 하고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하고 싶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성을 통한 사랑의 과정을 설명하고 결혼과 가정으로 연결되는 사랑의 방향성을 인식하게 도와줍니다. K중학교 성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장난스러우면서도 속스러운 목소리로 ‘짜짓기요’ 라고 대답하는 2학년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동물의 사랑을 우리는 ‘짜짓기’라 하고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관계’라고 합니다. 동물은 번식을 위한 짜짓기를 하지만 인간의 성은 ‘관계’라는 표현을 쓰듯이 친밀함과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함을 통해 상호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남자와 여자, 수정되는 그 순간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구분되어지며 여성과 남성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염색체의 차이, 즉 성별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염색체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D여자 중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성교육 시간보다 훨씬 더 예민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고 많은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생물학적,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여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성차별이 아

니라 성별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며, 그 예로 화장실을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화장실 사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이 1.5배 더 많은 것과 남녀가 운동경기를 따로 하는 것은 공정한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녀의 차이에 의한 ‘구별’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 할 수도 있는데, 이 갈등을 잘 다루지 못하면 차별의 문제, 혐오의 문제로 갈 수도 있지만 이 갈등을 조화롭게 잘 다루면 남자와 여자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관계 즉 인격적이고 성숙한 인간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도와줍니다.

성교육 강의 중 아이들과 잠시 질문과 대답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왜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에 집중한 아이들은 ‘저희들이 좀 더 참지 못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나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강사들은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엉망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사랑과 성의 가치에 대해, 성은 인격적인 관계임 대해, 성과 사랑 그리고 생명의 연결성에 대해, 기다림과 절제의 미덕에 대해 배워 본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성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 준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性)을 한자로 설명할 때 그 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자로 성은 마음과 생명의 조합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생명까지도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이로운 생명탄생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성품은 성을 다스리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며 이런 마음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인간의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넥스트클럽의 성교육은 고귀한 생명으로 연결 고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성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완성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을 생각하는 청소년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요즘은 성교육을 부탁하신 보건 선생님들께 가장 많이 요청을 받는 내용은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을 하거나 SNS 오픈 채팅을 통해 모르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성적 농담이나 욕설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거나 성적 접촉도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

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단톡방에서의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점수를 매기며 평가하는 행위입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 아이들을 집어 삼키려고 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로 더 열심히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성교육 현장에서 때때로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 가치관 교육은 예방교육으로서의 많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벌써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성인지감수성 교육, 페미니즘, 유물론적 세계관에 깊이 빠진 아이들은 우리 교육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인 성교육(피임교육)을 해주세요. 서로 합의했다면, 내가 선택했다면 성매매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성은 사고 팔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으며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성을 대상화시키며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육이 모든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 더 빨리, 더 선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성품(性品) 성교육을 가르쳐야겠구나, 우리가 들어가는 학교에서 만큼은 피임이나 자위에 대한 교육, 성평등 교육이 진행되지는 않겠구나, 우리의 작은 소망이 큰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또 한편으로 성문제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넥스트클럽은 탁월한 한 사람의 빠른 걸음보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함께하는 공동체가 더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며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변화될 아이들을 기대하며 느린 걸음이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